



책향기를 따라가니

# “자각하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월호 스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출판기념법회 현장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도를 닦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행(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회주 지흥) 보광당. 우레 같은 박수소리와 '월호 스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한마음으로 울려 퍼지자 하동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월호 스님이 웃는 얼굴로 법석에 앉았다. 이날은 스님이 펴낸 책 <당신이 주인입니다>(불광) 출판기념법회가 봉행된 날이었다. 이날 법회는 스님이 불교방송(BBS)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당신이 주인입니다' 방송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는 스님이 같은 이름의 BBS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에게 알기 쉽게 '참선'과 '경전'에 대해 설명해 온 내용을 엮은 책으로 현재 각 서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도 스님은 시종일관 쉬운 언어로 착색한 사부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으로 법회를 이끌어 나갔다. 법문이 책 내용 못지않게 쉽고 부드럽게 다가온다. 스님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스님의 한마디는 과연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청중을 유연하게 이어나가는 면모가 있다. 이를테면 불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염(念) '마하반야바라밀!'을 중간중간 외친다던지, 스님이 한 마디를 하면 불자들이 따라하도록 리듬을 넣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이다. 결코 일방적이지 않은 법문, 이쯤 되면 월호 스님에게 열광하는 팬들이 왜 많은

지 설명이 가능해진다. 스님이 이날 '十方同聚會(시방동취회)/ 箇箇學無爲(개개학무위)/ 次試選佛場(차시선불장)/ 心空及第歸(심공급제귀)/(시방에서 함께 모여들어 낱낱이 무위법을 공부하네,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니 마음이 '공' 해져서 급제해서 돌아가리라)'는 중국 방은 거사의 계승으로 법회를 열었다. 아무래도 한자다 보니 발음이 어렵다. 스님이 한 구절씩 부르던 대중들이 따라 받아 외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한바탕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지나자 스님이 계승을 꺼낸 이유를 설명한다.

## 불교방송서 1년간 방송한 내용 책으로 묶어 리듬 넣어가며 '주거니' '받거니' 법문 호응 좋아

“계승에서처럼 '무위법(無爲法)'을 공부해 마음이 '공(空)'해지는, 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해지는 것에 머무르지는 말아야겠지요. 공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는 존재 역시 공하면, 무엇으로든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기저기서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번뇌망상의 창고 격인 '마음' 잡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하지만 스님의 명쾌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법당에 모인 불자들 모두가 '공심(空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

반이 된다. 스님은 또한 '행불(行佛)'을 강조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 연소하는 삶, 스스로 주인이 되어 후회 없이 '~할 뿐인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완전연소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월호 스님의 법회에 참관하기 위한 사부대중은 6000명이 넘었다. 불광사 보광당은 물론 대웅전과 1층 로비까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한 불자들이 가득 차, 스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월호 스님의 법회에서는 청취자들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그 중 서울에 거주하는 홍순희(59)씨의 사연이 흥미롭다.

“3개월 전에 몸이 불편해 누워서 라디오를 듣다 우연히 스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살기도 힘들고 해서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더라고요.”

홍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고 부처 되는 공부에 매진할 용기도 얻는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법문을 글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공부합시다. 당신 인생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 월풀라 라홀라 지음·진철송 옮김 | 대원정사 | 1988

중랑구건강강정지원센터 이영호 소장

## 느낌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행복?

일요일 늘어지게 쉬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에 진동이 울린다.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모양이다. 번호를 보니 시누이다. “오빠! 잘 지내시죠? 불교에 입문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남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긴다. 나는 발자마자 대뜸 말했다.

“아가씨! 잘 지냈어요? 갑자기 불교에 입문하고 싶어졌어요? 축하해요~ 주소 불러 보세요, 책 한 권 보낼게요.”

20년 전 즈음,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에서 시간을 때우다 우연히 손에 집혀서 선 채로 절반을 읽으면서 마치 부족했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어준 책이다.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느낌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가르침이었다. 사실 대학원 시절에는 새롭게 앞을 이뤄나간다는 것에 대한 쾌감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마음을 즐기게 되는 불쾌감의 연속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던 나를 한 차원 올려주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감각, 불행하다는 느낌에 불행을 느끼지 않도록, 걱정거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관찰자가 되어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나



## 연기적 사고방식은 '분석적' 이던 내게 충격 스스로를 관찰하며 행복찾는 지혜 얻어

뭔가 채워지면서 또 반대로 채워져 답답한 공간이 비워져 시원한-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안정감, 또는 진리를 찾은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올 때는 바로 그 책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 몇 권이 손에 들려 있었다.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설과 원인과 결과의 산물인 업의 이론”에 천착하여 석사과정 내내 다분히 불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에 쾌감을 느끼며 즐기던 나에게 충격과 함께

를 있다는 것, 또는 의도적으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큰 행복인지를 비로소 찾게 된 것이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은 설명이 매우 명쾌하고 간결하면서도 부족함이 없고, 설명의 수준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으면서 중요한 불교의 원리를 잘 담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불교에 관하여 묻는다면 서슴없이 권하는 책이다. 특히 성취할 목표를 갖고 열심히 매진하는 젊은 엘리트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아가씨~ 책 받았어요?”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산사의 맛을 밥상까지.. **보물창고가 선사하는 산사 웰빙식품**

자세한 상품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물창고**

전제품 100% 국내산  
**3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 택배]**  
주문전화 02)2261-0255

전국 사찰에서 정성을 들여 만든 식품을 이제 보물창고를 통해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행사, 법회 때나 매점에서 사찰식품 소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23-16  
전화번호 02)2261-0255  
홈페이지 www.bomu0255.com

■ 입금계좌 : (예금주: 고영배)  
국민 995701-01-058608  
농협 360-02-136195  
우리 1002-636-745137

**장류**

- 참웃단장(1kg) : 28,000원(유리병) 35,000원(웅기)
- 태양초고추장(1kg) : 25,000원(죽염) 30,000원(죽염매실)
- 청국장(250g) : 3,000원
- 죽염조식간장(500ml) : 8,000원

**장아찌류**

- 오이(300g) : 7,000원
- 양파(500g) : 8,000원
- 무말랭이(300g) : 7,000원
- 깻잎(300g) : 8,000원
- 새송이버섯(300g) : 7,000원
- 아삭이고추(300g) : 7,000원

**차류**

- 산뽕잎차(100g) : 20,000원(중급) 30,000원(상급)
- 연잎(50g) : 9,000원(봉지)
- 연근차(100g) : 15,000원(지통)
- 백련차(100g) : 30,000원
- 발효차(100g) : 30,000원 외 다수

**기타**

- 연길 : 12,000원(전장 10봉) 13,000원(식탁용 42봉)
- 죽염(300g) : 4,000원(2회) 6,000원(3회)
- 청국장장(250g) : 27,000원 30,000원(서목태) 35,000원(서목태표고)
- 산야초오곡조청(1.2kg) : 48,000원 외 다수

##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소장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뎀: 다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위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터 맞은 편

옥물제작 : 옥예원 011-347-0085